



# 가족행복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14:00~16:3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주 최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주 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안녕하십니까?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가족구성원의 행복 증진과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자녀양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가정의 날’(5.15)이 있는 주를 부모교육주간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여성가족부 장관 **강 은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 명 선**

13:30~14:00 등 록

사 회 :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00~14:10 개 회 사  
축 사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좌 장 :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14:10~15:00 | 발표 1 |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발표 2 |

부모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00~15:10 휴 식

15:10~16:10 | 지정토론 |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혜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10~16:30 종합토론



| 발표 1 |

-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 1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발표 2 |

- 부모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27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35
-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 55
- 이혜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9
-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16
-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6



#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부모교육**이란 부모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Being)과 + 교육이라 접근법을 합성한 단어이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모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있고, 지금도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과거에 맺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부모 측면에서 보면, 미국식으로 ‘Parenting is a 24/7 job’이다. 즉 하루 24시간 1주일에 7일 하루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항상 해야 하는 일이고 평생 지속되는 직업/일이라는 것이다.

Smith, Perou, & Lesesne(2002)는 ‘**사회의 미래에 있어 parenting 보다 더 중요한 직업(job)이 없으며, 한 아이를 기르는 일보다 더 큰 책임감은 없다(p.389).**’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편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고, 반복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타인에게 취급받기도 한다. 그러나 잘못된 부모역할로 인해 아동기의 심각한 위험이나 행동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가족생활은 물론 아동의 삶이 엉망이 된다면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그 책임 범위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밝혀진 ‘부모에 의한 어린 아동의 학대와 사망, 은폐 과정’은 모두를 경악케 함은 물론 그 과정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무지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경제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하면서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면서, 미래의 희망으로서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하고, 아동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능을 잠시 잊었거나, 이 기능이 작동하는데 있어 엄청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본 사례였다. 부모의 역할은 한 아동의 생활과 함께 온전한 삶의 유지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지역과 국가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에 2016년 3월 29일(연합뉴스, 정부 아동학대 합동 발굴시스템 구축…빅데이터 활용),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아동학대방지대책’을 통과하였는데, 정부가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가정기능이 취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각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의 관계부처 합동(2016. 3. 29)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결혼 전 예비 부모교육, 산전산후 부모교육, 영유아기관의 부모교육, 학교 내 부모교육
- (2) 취약가정 부모 중심의 지원: 취약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강화, 1:1멘토링서비스
- (3)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 (4) 부모교육 전문성 강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부모교육전문강사 체계적 관리(강사 통합DB 구축, 국가자격증제도 검토 등)
- (5) 부모교육 추진체계 정비- 민간협력 확대, 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 부모교육총괄기능강화, 관계부처 TF 운영 등
- (6)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홍보, 각종 정부 서비스 제공시 부모교육 안내, 부모교육주간 신설 및 온라인 캠페인 실시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산발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부모 대상의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어 **부모를 정책 대상자**로 부각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수행시 사각지대가 없는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부모교육 보다는 **전문성이 있게 진행되어야** 그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점을 인지한 것도 긍정적이다. 부모교육을 예방적, 선제적, 적극적으로 개념을 선회한 취지도 좋다. 가족 내 아동 문제 발견 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 1) 부모를 생애주기별 부모와 취약가정 부모로 이분화하고 있어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특성은 고려하여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 부모교육실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접근성 제고 측면이 제시가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을 하는 자발성이 있는 부모 대상의 전략은 고려되어 있는 반면, 정작 정보에 어둡고 접근성이 낮은 사각지대의 부모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수행 전략은 부족하다.
- 3) 전문성 강화에서 일반 부모를 위한 전문성이 주로 제시된 반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강도가 높은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와 아동은 포함이 덜 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부족하다.

- 4) 부모교육의 방식을 주로 집합 강의 위주, 강사의 Top->down식의 내용 전달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어떤 서비스의 경우 연 1회의 단발성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성인교육분야에서 단발성 집합 강의의 효과는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1회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자의 숫자가 많고 주체 측에서 볼 때 수행이 쉽고 교육대상자의 자발성을 끌어내고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인해 스타 강사를 초청하여 축제식 강의로 부모 만족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교육의 장소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해오고 있던 자녀양육관이나 행동, 태도, 문제 등을 되돌아보고 차분히 점검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각 부처에서도 그동안 성과 보고처럼 진행되었던 부모교육 횟수, 참여자 수 합계 등과 같은 양적 숫자에 중요도를 두어서는 부모교육의 내용적 질과 변화, 그 효과 지속을 보장 할 수 없을 것이다.
- 5) 교육 대상의 세분화를 피해야 할 뿐 아니라 대상에 따른 서비스의 강도와 방식 구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총괄 기능은 언급되고 있으나 운영예산, 전달체계 등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 6) 부모의 참여를 장려하고 부모가 교육대상자이며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자 한 반면, 부모교육이 공공성을 띄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 수행 변화를 위한 장단기적 계획과 제도적 체계 마련 부분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미화·김의향 외(2015)는 현재의 부모교육이 대부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정부 산하 기관들과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성을 띄는 부분이 적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부모교육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예비부모와 영유아 자녀 부모를 타겟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면, 3개의 대주제(부모됨-3개 소주제, 부모역량강화-5개 소주제, 우리 아이의 건강한 발달-3개 소주제)하에 11회기의 소주제와 각 소주제별 3개 활동으로 총 33개 활동을 제시하였다(이 중 부모연계의 통신문 11개를 제외하면 22개 활동으로 구성).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이거나,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교육형태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대상자의 관심에 접근하며, 이들의 행동 변화 등을 피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일회성이 아니라 한 학기, 또는 일년을 걸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 0-1세와, 2세, 3-5세의 자녀를 둔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부모의 사회맥락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집 등과



같이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에 본인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첫째,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전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기술하고, 둘째, 이에 기초하여 부모교육이 국가적으로 계획되어 진행되기 위한 필요성은 무엇이고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은 필요성에 따른 세부적 논의가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추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한 전제

- 1) ‘부모’라는 단어는 부모와 자녀라는 자리가 함께 고려되어, 이들의 양방향적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부모라는 용어는 자녀 편에서 부모를 말할 때와 부모 편에서 자녀를 언급할 때의 상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등을 고려할 때 부모 편에서의 특성, 노력, 이슈만을 고려하는 일방적 내용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라는 두 사람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자녀 편에서 나타나는 특성, 결과 등의 양방향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부모라는 용어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부모-자녀 두 사람의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인간의 생애발달적 과업상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나 변화속도 등에서는 자녀 쪽이 더 강조될 부분이고, 관계에서의 힘(power)이나 책임의 측면은 부모 편에 더 크게 있다. 전 생애기간 중 많은 부모들은 성인기에 부모기(Parenthood)를 시작하며, 죽을 때까지 자녀와 관계를 형성해 간다. 따라서 부모기에는 자녀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애쓰며 늘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일(job)하는 시기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성은 두 사람의 생애발달 과정에 따라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교류되며, 변화하여 간다.

부모는 자녀를 임신하면서 **부모(being)**가 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부모가 되어 가는(becoming)** 과정을 끝없이 밟아나간다. 성인인 부모가 자녀야 할 민주적 판단과 유능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처음으로 맺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부모되기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경험해 나간다면 부모가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장혜진 외(2013)는 ‘부모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되기에 필요한 내용을 개발하였다. 하위영역을 보면 부모들은 영유아발달, 건강과 안전, 가족관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관련 영역에 대해 부모로서의 바른 인식과 생활에서의 실행, 그리고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이 좋은 부모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는가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자녀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고려되어야 한다.

- 3)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 요인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교육대상의 타겟이 분명하고, 그 대상에게 적합한 교육내용, 운영체계가 일관성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부모-자녀간 최적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Parenting이라고 한다면, 상호역할의 균형을 제대로 잡는데 있어 어떤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려로부터 출발하여 그 구체적인 고려점이 부모교육의 계획과 실행 내용, 운영방식, 그리고 평가에 일관성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최적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부모나 자녀 모두 그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 변화 등의 긍정적 방향성이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쪽 모두 스트레스, 분노, 적대적 행위 등의 부정적 양상이 유발되어 나갈 수 있다. 부모-자녀간 관계 유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고 이를 고려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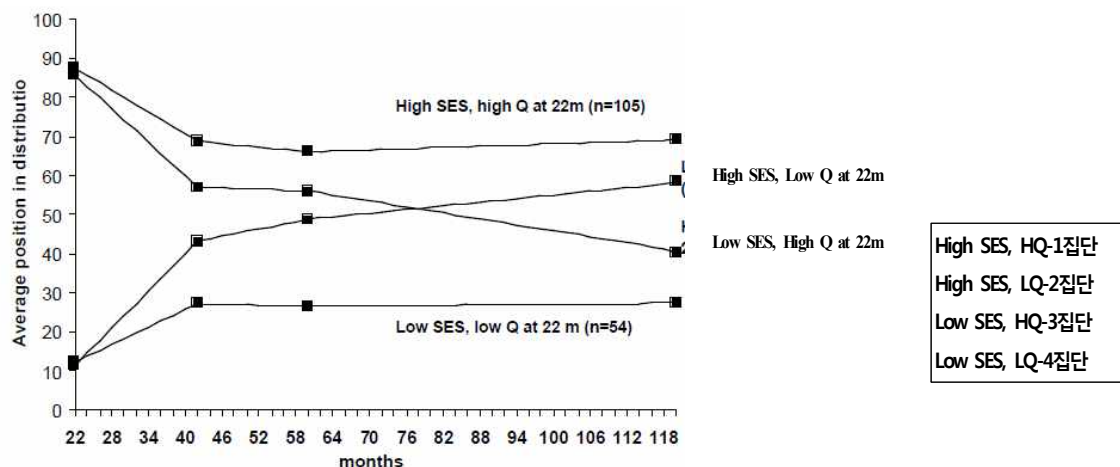
- 4) Parenting에서의 골든타임처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고 그 시기 동안의 부모교육을 더 강화하고 더 우선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부모역할이 자녀의 발달 중 언제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역할 중 어떤 내용이 자녀의 발달적 변화와 관련하는가 등의 해답은 부모교육의 효과성, 누적성, 효과의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질문이다. 즉 부모가 조금만 개입을 해도 자녀의 발달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그 부분이 누적되어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면, 우선 그 시기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주요한 역할을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우선 제공하는 것이 가장 변화가 크고, 누적된 발달이 이후의 발달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우선 고려 대상이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양도 많아야 함은 당연하다.

Feinstein(2003)은 영국 아동 1,292명을 대상으로 코호트조사를 하였는데 22개월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인지점수를 측정하고 이를 다시 3세 반(42개월), 5세(60개월), 그리고 10세에 측정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아래 그림 1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사분위에 따라 인지점수를 나누었다. 이때 2분위와 3분위 집단을 뺀 4개 집단의 측정 점수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22개월의 인지점수는 이후 10세까지의 인지점수를 예측하였고, 특히 집단 4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경험이 이 아동들의 인지 점수에 어떤 영향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월에서 만 5세 이하까지 인지 점수의 상승 또는 하락폭은 그 이후시기부터 10세까지의 것과 비교할 때 더 컸다. 이는 어린 시기의 수준이 이후 아동의 성취를 예측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연구자는 영아기처럼 자녀가 더 어릴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경험이 공평하게 모두 주어지도록 국가나 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특히 여러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취약계층 가족을 위해, 강도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중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출처: Feinstein, L. (2003)

[그림 1] 22개월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22, 40, 60개월과 10세 아동의 인지점수

- 5) 사회에서 부모역할의 윤리를 가정의 영역,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가 협력하여 지원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Baumrind & Thompson(2002)은 부모역할의 윤리(the ethics of parenting)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녀의 안녕(wellbeing)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의 최상의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권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관점에 따라 내용과 정도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동은 태생적으로 자유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고 성인이나 아이 모두 동등하게 이러한 결정권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호주의자들은 아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양육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더 강조를 둔다. 발달주의자들은 책임에 대한 결정능력은 아동의 연령 또는 발달단계에 따라 매우 차이가 있으므로 성숙한 성인 대 성인 관계로 될 때까지 아동의 자유는 제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도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것은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 노력을 통해 특히 아동의 인성과 능력을 발달하고 형성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이 연구자들은 이를 ‘발달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 부모의 혼자 책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윤리적인 부모역할은 부모 혼자만의 책임감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다양한 물질, 재정적, 인적자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지원에는 당연히 법적, 행정, 정책적 지원도 포함된다.

## 2.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교육의 방향

부모교육이란 분명한 교육대상, 대상의 특성에 따라 증진시키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조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mith, Perou & Lesesne, 2002). 이때 이들의 행위나 기술, 감정 등을 증진하기 위해 하는 교육 부분과 이들을 지원(support)하는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3월 현재 0세부터 19세 이하의 인구는 약 1천23만명이다. 우리 사회에 이 숫자의 19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 모두가 부모교육의 대상이 된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다보면 어떤 부모교육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이 연결되어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함께 묶어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많이 언급되었던 부모교육의 필요성 측면은 어느정도 생략하고 중요한 몇가지만 논의하고자 한다.

- 1) 부모가 자녀양육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 Yes, 그러나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내용, 운영체계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교육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자녀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성인이 부모이다. 그 부모는 과거 30년 전에 비해 결혼연령이 늦다. 즉 지금의 부모 세대는 자신의 부모세대에 의존하여 더 긴 시간을 배려 받으며 자신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에 익숙해 있다. 출산 후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익숙해 있던 모습에서 변화된 행동을 쉽게 안착시키기는 더 어렵다.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이의 행동을 방관하는 엄마, 게임기를 가지고 자녀와 싸우는 아빠 등은

애교이고, 영아가 운다고 콜라를 젖병에 따라 먹이는 부모 등도 오픈된 식당에서 보게 된다. 자녀의 기대 수명률은 더 길어지고 있다. 그만큼 부모의 초기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자녀의 전생애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지도록 국가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대상이 지니고 있는 요구와 문제, 과제, 흥미와 교육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1)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대상에 효과적인 내용과 방식, 운영으로 교육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국가 정책적으로 대상의 세분화는 아동을 중심으로 볼 때, 삼각형 분포에서 아래로부터 일반아동 대상, 취약하다고 예측되는 아동, 특별한 요구가 분명한 아동,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 법적보호대상 아동, 심한 학대와 방임받은 아동으로 좁혀가면서 구분할 수 있다.

(3) 일반 아동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그 연령의 발달적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부모가 지닌 부모로서의 능력과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연령의 구분은 그동안 연구결과들이 많이 제시된 만 0-1세의 영아기, 만 2세인 걸음마기, 만 3-5세의 유아기, 초등 1-3학년의 저학년기, 4-5학년의 초등 고학년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청년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Bornstein, 2002). 자녀가 혼자 또는 형제가 있는 가족, 쌍둥이 또는 다둥이의 가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4) 앞에서 Parenting의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만 0-1세, 2세에 대한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부모들은 처음으로 양육관련 정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세팅해가는 기간이어서 모든 것이 궁금하지만, 어린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래나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높은 관심과 이러한 틈새를 노려 대부분의 책전집 판매영업사원이거나 놀이감 판매자들이 틀린 양육정보를 주거나 편파적인 내용을 제공하기도 한다. 부모들 스스로 정보검색을 통해 단편적인 내용을 찾아 잘못된 상황에 적용하기도 한다. 어찌보면 태어난지 일이년도 안되어 아이와 가정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우리나라만의 기현상이 몇십 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정도와 빈도는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일반 부모라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교육은 강도를 높여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낮고 부모기를 처음 시작하여 생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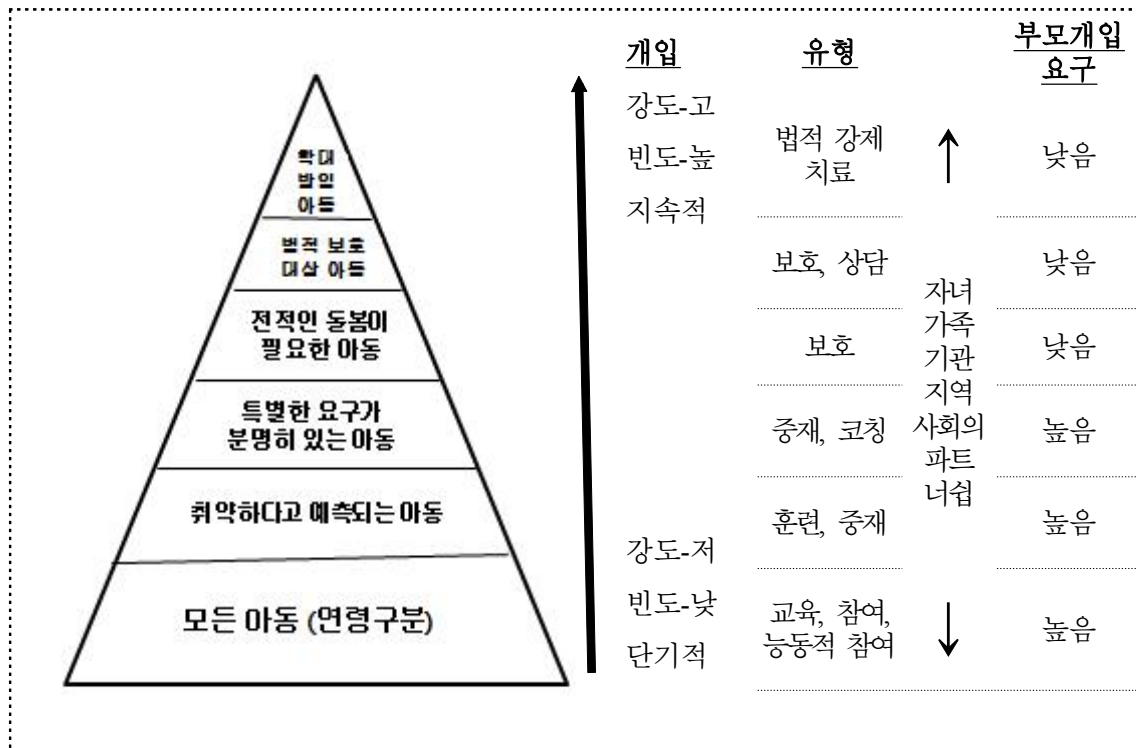
하는 요구를 접목해야 교육적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 것이다. 뒷부분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며 교육 강도의 조절만 된다면 영아기 부모프로그램을 위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한편, 이미화 외(2015)는 연령별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예비부모를 위한 국가적 제도화를 제안하여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 (5) 교육이라는 용어를 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타겟으로 잡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의 요구가 무엇이며, 그 대상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면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게 되고 어떤(지식, 행동, 기술, 태도, 성향 등) 부분이 증진되는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 외에 그 교육을 진행할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체계에 대한 방식도 꼼꼼히 수립되어야 한다.

자녀와 부모에 대한 대상 이해 자료를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얻고, 이를 누적하여 어떻게 교육 중에 활용할 것인지, 내용 선정은 그것에 기초하여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그 교육을 전달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교육할 것이며, 얼마의 기간 동안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강사들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정과 이들의 질적 유지는 어떻게 하며, 교육에 대한 홍보와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필요하다면 심리적, 정보적, 물적 지원을 추가로 언제 제공할 것인지 등이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물론 예산 운영 방식과 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할 주체 기관과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기,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협력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교육의 성공과 정착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

- (6)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할 때 성인을 수동적 학습자로 보지 않고 이들의 자발적 동기, 참여, 부모교육자와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증진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며, 특히 부모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을 변화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empowerment)이 중요하다(김희진, 2005)는 점을 강조한다.



[그림 2] 아동의 요구에 의한 부모교육 대상자 및 이에 따른 부모교육 방식 구분

- 2) 국가가 정책적으로 더 강화해야 할 부모교육 대상자와 부모교육방식이 있는가?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부모교육이 적극 지원되어야 하는가? - Yes,  
사회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강도있게 주도해야 할 부모교육  
대상과 방식이 있음

위의 그림 2에서 보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을 선도할 대상은 모든 아동 위에 위치한 아동들과 그 부모들이다. (가) 취약하다고 예측되는 아동으로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밝혀진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지 않은 아동과 부모들이 포함된다. 즉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10대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다. 한편, 맞벌이 가정이나 이를 도와주기 위해 대체 기능으로서 손자녀를 직간접으로 돌보는 조부모양육, 이혼 및 재혼가정 등은 일반 모든 아동집단과 취약하다고 예측되는 집단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은설·김혜진·김문정·Walker(2011)의 연구자들은 농어촌 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어촌 가정의 경우 (가)군 집단에 포함될 것이다.

(나) 특별한 요구가 분명한 아동들로는 입양아, 장기간 아픈 아동, 정신지체아, 장애아 등이며 이외에 특별한 문제(예: 등교거부, 게임중독 등)가 있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다)

전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과 법적 보호대상 아동으로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다. (라) 학대와 방임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아동과 부모가 가장 심각하게 국가나 사회가 개입을 해야 할 경우이다. (다)와 (라)의 경우는 부모보다 전문가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전적인 보호는 물론 문제 발생 시 적극 개입, 법적 구속력은 물론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를 지속하여야 한다.

한편, 부모교육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는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를 세분화하여 부모교육의 강도나 참여자의 능동적 역할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용어가 사용된다. 즉 부모교육(education), 부모훈련(training), 부모참여(involvement), 부모의 능동적 참여/권한부여(engagement, empowerment), 부모중재(intervention), 코칭 등이며 이럴 경우 교육은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외에 모든 프로그램 대상들이 동일한 참여 권한과 적극성을 가지고 통합적 노력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경우에 개인, 가족, 기관 또는 지역사회 간의 Partnership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부모교육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훈련, 교육, 중재, 파트너십 등 대상과 프로그램 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원고의 범위인 부모교육의 측면에서, 국가나 사회가 좀 더 책무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실행해야 할 대상은 (가)와 (나)의 자녀와 부모들이다. 이 대상들은 일반 모든 가정의 자녀와 부모보다 여러 측면에서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부모역할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과 전문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가)에서 저소득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가)에 근접해 있는 맞벌이가정 및 이혼 및 재혼가정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 (1) 사회 내에서 빈부격차, 문화격차, 인종차 등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생애 초기부터 평등하게 시작할 권리를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50여년 전부터 그림 2에서 두 번째에 있는, 취약이 예측되는 아동 및 그 부모를 대상한 교육이 개발, 정착, 효과성 평가 등이 보고되고 있다. Hoff, Laursen, & Tardif (2002)는 그동안 보고된 많은 연구결과들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부모들은 첫째, 사회적 기대에 더 부응하기 위해 자녀에게 관심을 두며, 둘째, 가정분위기는 민주적이기 보다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셋째, 부모 권위에 대한 자녀의 도전에 대해 대체적으로 벌을 주는 경향이 높고, 넷째,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더 지시적이면서 자녀에게 대화는 덜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녀양육을 할 때 부모가 만드는 정서적 분위기나 사용하는 양육실체가 다르므로 일반 부모들과 같은 내용의 교육내용이나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2) 우리나라 4-5세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들의 요구와 발달수준, 특성에 맞춘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김명순·이미화, 2005)을 2년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맞는 지속적 교육은 물론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한 아동에게 **ons-stop**으로 제공하였다. 이들의 성취를 일반 어린이집 저소득 아동과 비교하여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이들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 점수를 높였다(이정림·이은혜·김명순·전혜정, 2010).
- (3) 저소득, 다문화(이민, 이중언어) 가정이면서 영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선진국에서 국가적으로 집중하여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방식 중 하나로 ‘집으로 찾아가 일대일로 지원하는 부모교육(home-visiting program)’을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고 그 교육적 효과는 매우 높다(김명순, 2009; 김명순·김길숙·이명신, 2008). 이 방식의 부모교육은 주로 자녀를 두고 교육을 받으러 나오기 어려운 영아 부모이면서 교통수단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발적 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으나 위험요소가 많은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수한 내용으로 실행했을 경우 자녀나 부모, 가족 모두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크다. 이 부모교육은 그림 2에서 보듯, 구분하면 중재 유형이다.
- (4)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의 Zero to Three, Early Head Start, MIECHV(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등이 있다. 앞의 두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시작된 MIECHV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현재 미국내 46개 주에서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Vermont주는 타켓 가족의 약 26%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Rodrigue & Reeves, 2015). 나머지 주들도 동일한 프로그램명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개발한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IECHV는 2008년 부시대통령이 증거 기반의 결과를 찾고자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에 최초로 일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얻어, 약 10배인 일억달러가 지원되었고, 2011년에는 이억오천만달러, 2012년에는

3억5천만달러,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4억달러라는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예산규모를 급격히 늘려가며 연방정부가 ‘찾아가는 일대일 부모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질적으로 우수한 ‘집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내었고, 효과는 객관적 증거 자료로 입증되었다. 객관적 증거 결과란 다음과 같다.

- 25-50개월 영유아에게 발생하였던 상해 비율에 있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40%가 감소되었고, 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이 응급실을 찾았던 비율이 35%나 감소되었다.
- 부모양육행동이 증진되었고, 어머니의 건강이 증진되었다.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통제집단 아동 보다, 12세에 측정한 읽기와 수학 점수가 더 높았다.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감소되었다.
- 16세 전에 체포되는 자녀의 비율이 59% 감소하였다.

(b) 이 프로그램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지원 하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잘 할 수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점이다. 즉 가장 먼저 시작 한 것은 정확한 효과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한 후, 그 객관적 결과를 통해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요인만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c) 이 프로그램의 예산 중 75%는 반드시 사전 연구결과에서 효과적이었다고 입증된 다음의 8가지 영역과 관련한 활동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 (1) 아동발달과 학교준비도 (2) 아동 건강 (3) 가족의 경제적 자립 **self-sufficiency**, (4)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와 **referrals** (5) 어머니의 건강 (6) 긍정적인 부모양육실제 (7) 학대나 방임 등 자녀 **maltreatment** 감소 (8) **juvenile delinquency**, 가족 폭력, 범죄율 감소. 그리고, 예산의 나머지 25%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평가하여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시작하였던 영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일대일로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었다(김명순 외, 2005; 김명순·채은화, 2008; 김명순·황혜정·안효진, 2012a, 2012b). **영아용 중재프로그램**인 일대일 찾아가는 교육은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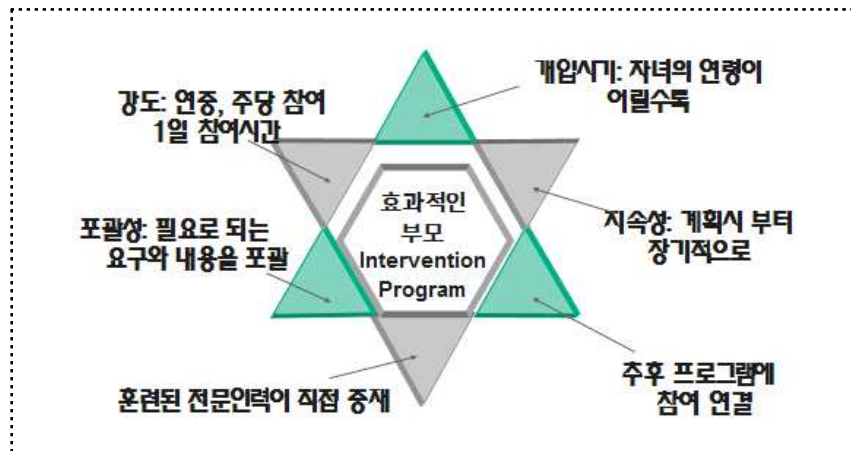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있다(김명순, 2009; 김명순·황혜정·안효진, 2012a, 2012b).

- (a) 1:1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할 것.
  - (b) 훈련받은 전문교사가 진행해야 할 것.
  - (c) 집안의 일상적 자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부모가 영아와 즐겁게 놀며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전문교사가 부모 앞에서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부모가 스스로 시도해 보도록 하며 부모가 자신감을 높이도록 함
  - (d) 영아기의 언어, 인지, 소대근육, 사회정서 발달과 즐거운 놀이활동에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부모의 반응성, 민감성, 유능감을 증진함
  - (e) 빈약한 가정환경을 고려해, 가정 내에서 일주일 동안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놀이감, 책, 자료를 무상 제공할 것
  - (f) 저소득 부모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 영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교사가 부모가 궁금해 하는 것들에 상담하기 위해 1회당 충분한 영아자녀 활동 시간(최소 40-50분)을 보장할 것
  - (g) 영아 중재프로그램의 성공에 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부모에게도 매력적인 활동이 되도록 이해가 쉽고 반복적 방식으로 구성함.
  - (h) 이 교육적 중재는 시작 후 주 1회, 연간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장 2-3년간 대상 가정이 계속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것
  - (i) 가정에 제공되는 활동들은 발달적, 문화적으로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함
  - (j) 영아의 월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 I, II, III 활동으로 나누어 적용
  - (k) 매주 활동에는 영아에게 제공하는 자료 등과 쉽게 작성된 부모용 활동 안내서가 제시되어 전문교사가 다녀간 후 부모가 직접 일주일 동안 해볼 수 있도록 전화 등의 매체를 통한 지속적 격려 활용
  - (l) 전문교사의 역할을 중시하여 대상 영아와 가정,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교육내용 관련 사전 훈련, 융통성, 평가능력, 부모와 신뢰감 형성 및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영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적용능력, 영아의 개인차에 맞게 활동을 적용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훈련 실시함
- (6)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들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부모교육에 참여하거나 자녀를 위한 추가적 노력을 스스로 시도하기가 어렵다. 홍승아 외(2010)의 연구자들은 취학 전후의 자녀를 둔 여성이 취업을 하였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자녀의 연령이나 보육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일가정양립 스트레스와 갈등, 건강문제, 시간부족이라고

실패를 보고하였다. 즉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과 직장 업무 둘 다를 매일 반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매우 다른 두 역할 간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어져 어려움이 있다. 자녀 입장에서조차 부모 대신 양육을 담당해 주는 사람과 부모간 양육 신념, 태도, 행위 등에 있어 연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을 유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 양과 함께 나눈 경험도 부족하며 자녀 또래의 네트워크도 긴밀하게 유지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취업모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자녀가 받는 프로그램의 질 향상, 자녀양육 비용지원, 교사의 질 개선과 학교의 안전성 보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부모가 동일한 요구를 하였을 내용이다. 취업모들의 일가정양립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은 가정외의 사람, 보육기관, 사업장, 국가를 향해, 추가적 지원을 제도화 해 가는 것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취업모 역시 자신의 부족한 자녀양육역량을 높여나가도록 직간접 지원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양적 시간의 확보는 물론 시간 사용의 내용적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부분도 강조되어야 한다.

- (7) 결론적으로, (가)(나)에 해당하는 자녀와 부모의 경우, 예방적 차원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부모교육 즉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재프로그램은 협의의 교육적 정의와는 다르게,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 3에서 제시된 것처럼 (a) 타겟 대상에게 좁혀진 필요한 교육내용 (b) 훈련된 인력이 직접 전달하는 전문적 교육방식과 지원 (c) 실시기간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됨 (d) 프로그램의 강도가 높아야 함 (e)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더 빨리 실시 (f) 일대일이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 변화를 추적하고 평가 체계가 사전에 계획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림 3] 효과적인 부모교육 중재프로그램을 위한 조건

- 3) 현행의 법에서 부모의 역할, 의무, 권리나 참여에 관한 언급이 있는가?  
 얼마나 적극적인 부모 역할이나 부모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가?  
 - Yes. 그러나 각 법의 특성에 따라 용어나 범위 등이 모두 다름

부모와 19세 이하 자녀 관련법은 아래에서 보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이 있다. 윤재석·이정림·임준범(2015)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부모역할과 권리, 참여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본 원고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위의 5가지 법들을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표 1, 표 2, 표 3에서 보면 우리나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가정과 관련 법들은 부모의 역할과 의무, 권리, 참여에 대한 규정 범위나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 내용 빈도로 보아서는 부모의 책임 부분보다 부모의 권리부분이 더 자주 기술되고 있고 부모 참여에 대한 부분은 적었다. 건강가정지원법은 부모교육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언급한 반면 부모가 자녀양육증진을 위해 부모교육에 참여할 책임이나 이를 권장하는 등의 내용은 없었다.

정부부처가 현행의 부모교육을 그대로 따로 수행하면서 그 과정만을 공유한다면, 아래의 법 상에서 부모의 책임, 권리, 참여 범위가 제각각이듯 부모교육의 대상이나 내용, 수행과정 역시 제각각으로 되어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아교육법을 예를들면, 동법 상에서 운영되는 유치원의 경우, 기관에 다니는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진행될 것이며 그 교육이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유치원 재원아 이외의 어디 부분에서 부모교육의 사각지대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책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문제 발생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대상 부모들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고 자녀와 부모,

가족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상을 포함시키고 이를 추적하는 총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떻게 각 기관과 부처가 협력하고 서로 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부모책임·권리·참여 규정 내용

	법조항	부모책임 (역할, 의무)	부모권리	부모참여
영 유 아 보 육 법	제3조 (보육이념)		차별 없는 보육 권리	
	제4조제2 (책임)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및 안전 심의 참여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안전 심의 참여
	제15조의4 (폐쇄회로 TV의 설치 등)		전원 동의로 CCTV 미설치 권리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영상정보 열람 요청 권리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및 안전 심의 참여
	제25조의2 (부모모니터링단)			수요자 중심 정책실현, 운영상황 모니터링, 컨설팅, 사례전파
	제25조의3 (보호자의어린이집참관)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참관 권리	
	제29조의4 (보육과정)		특별활동 프로그램 동의할 권리	
	제31조의3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유아의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영유아 질병치료 및 예방조치
	제34조의2 (양육수당)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 수급권리	
	제34조의4 (비용지원의 신청)		보육비용을 신청할 권리	
유 아 교육 법	제37조의7 (비용지원신청관련 정보의 고지)		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고지 받을 권리	
	제39조 (세제지원)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권리	
	제3조 (책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		
유 아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법조항	부모책임 (역할, 의무)	부모권리	부모참여
교 육 법	제12조 (학년도 등)		방과후 과정 운영 요구 권리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건강검진 실시 후 유아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제17조의2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생활기록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 및 안전 심의 참여
	제24조 (무상교육)		무상으로 제공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권리	

<표 2>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자 책임·권리·참여 규정 내용

	법조항	보호자*책임 (역할, 의무)	보호자권리	참여
아 동 복 지 법	제3조 (정의)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 받을 권리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		
	제15조 (보호조치)		- 가정위탁,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보호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 할 권리 - 시·군·구에 의해 보호조치가 계획되는 경우 계획 수립에 참여할 권리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법원에서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 권리	
	제28조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가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및 방해하여서는 안 됨.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할 책임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표 3>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친권자(가정) 책임·권리·참여 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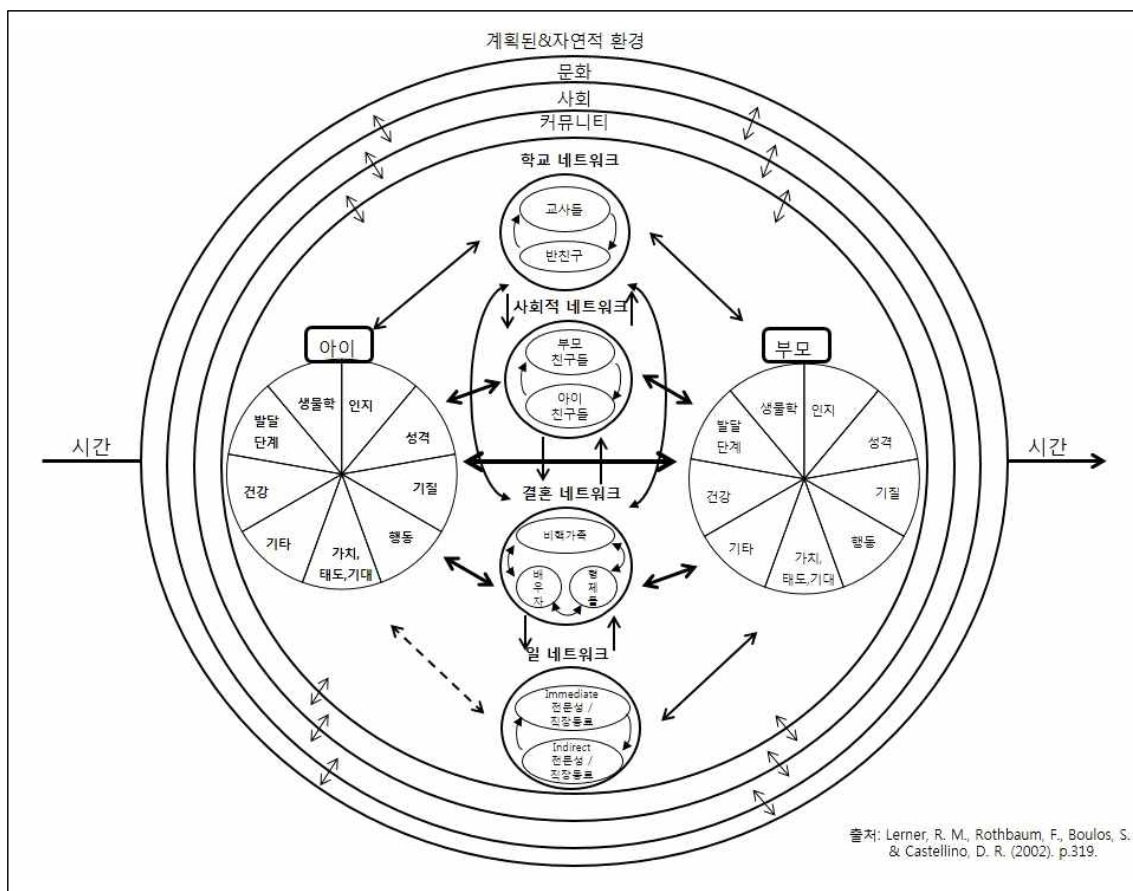
	법조항	친권자*의 책임 (역할, 의무)	친권자의 권리	참여
청소년 기본 법	제6조 (가정의 책임)	(가정)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고 보호할 책임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에 대한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요청할 권리	
청 소 년 보 호 법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공시)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요청할 권리	
	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의 가입을 할 때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함.		
	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이용시간· 결제정보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요청할 권리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이 가능		
	제34조의2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중독여부를 판별,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신청할 수 있음.	
	제50조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서 그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	
건강 가정 기본 법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함		-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	
	제7조 (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함		
	제32조 (건강가정교육)	(국가 및 지자체)는 부모교육을 포함하여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함		

\* ‘친권자 등’이란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3. 부모교육에서 추후 과제

1) 부모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처한 복합적 맥락을 고려해서 정밀히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아래의 그림 4는 한 자녀와 부모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발달해가며 서로에게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가를 생태학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4를 보면 한 자녀와 부모는 각자의 발달과업을 이루는 것은 물론 부모는 결혼, 직장 네트워크, 그리고 자녀 학교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받는 양방향 관계를 유지한다. 이 모든 관계는 한번 세팅된 후 유지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간다. 이렇게 복잡한 맥락내의 자녀와 부모에 대한 정확한 특성 파악이 가장 중요하면서 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선 수행, 후 정리’식으로 교육 건수만을 올리고자 해서는 안된다. ‘선 분석과 개발, 후 수행’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교육대상자의 행동과 환경이 변화하였는지에 주 관심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그림 4] 생태학적 이론에서 설명하는 자녀와 부모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 국가가 부모교육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지향적이며, 숫자 부풀리기식 평가가 아니라 참여 강도를 높이고(김희진, 2005), 전문적인 효과성 평가 연구를 통해 증거기반의 자료를 국회나 국민에게 제시하여 예산 확보와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odrigue & Reeves, 2015).

3) 문어발식으로 프로그램들을 펼치는 것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아주 핵심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적어도 5-10년간 장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단 및 정당을 초월한 합의가 필요하다.

4) 부모의 특성별로 개발된 전문화된 프로그램은 전문교사의 훈련과 양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인된 전문 자격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김은설 외, 2011).

5) 자발적 참여도가 높은 부모를 대상으로 개입강도가 낮은 내용일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영상이나, 온라인과정, 모바일 참여가 가능한 부모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자녀 연령, 자녀기질, 자녀수 등 다양한 요인별로 세분화된 교육내용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부처별로 산만하며 반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부모교육을 중복성 없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을 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아니며, 대상에게 적합한 한 두 핵심프로그램이 좋은 것이라라는 인식을 정책가, 지역사회관계자, 프로그램 운영자, 부모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되는 것이 스트레스 보다는 즐거운 상황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부모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 하나는 외부 사람들로 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받고,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Garbarino, Vorrasi, & Kostelny, 2002).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건강한 자녀와 부모 관계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명순(2009.4). We Start 보육·교육 영역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결과 및 전망. 제5주년 We Start International Seminar 자료집, We Start 운동본부.
- 김명순·김길숙·이명신(2008).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 복지, 보건의 통합적 조기 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비교 고찰. **아동과 권리**, 12(2), 161-188.
- 김명순·이미화(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아동교육프로그램**. 서울: 보육사
- 김명순·채은화(2008.3). 경기도 안산시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한 위스타트 기관방문중재프로그램의 실시와 평가: 영유아 중재프로그램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2008년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pp.603-613.
- 김명순·황혜정·안효진 (2012a) **영아기 예방적 놀이중재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1권**. 서울: 다음세대.
- 김명순·황혜정·안효진 (2012b) **영아기 예방적 놀이중재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2권**. 서울: 다음세대.
- 김은설·김혜진·김문정·Walker, S. (2011).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1-16.
- 김희진(2005). **현대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포괄적 관점**. 서울: 창지사.
- 윤재석·이정림·임준범(2015).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5-05.
- 이미화·김의향·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신혜원·신윤승·신영아·배성연·김영란(2015). 부모 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0901.
- 이정림·이은혜·김명순·전혜정(2010). 저소득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31(1). 65-82.
- 장혜진·이정림·윤은주·김혜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3-20.
- 홍승아·김은지·이영미·권민정(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효율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2.
- Baumrind, D. & Thompson, R. A. (2002). The ethics of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3-3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ummings, E. M. & Cummings, J. S. (2002). Parenting and attachment.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35-58), Mahwah, NJ: Lawrence Erlbaum.
- Epstein, J. L. & Sanders, M. G. (2002). Family, school, and community partnership.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407-43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arbarino, J., Vorrasi, J. A., & Kostelny, K. (2002). Parenting and public policy.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487-50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off, E., Laursen, B. & Tardif, T.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2: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 (231-252),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erner, R. M., Rothbaun, F., Boulos, S., & Castellino, D. R. (2002). Developmental systems perspective on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2: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 (315-34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Rodrigue, E. & Reeves, R. V. (2015 February 5). Home visiting programs: An early test for the 114th Congress.  
<http://www.brookings.edu/blogs/social-mobility-memos/posts/2015/02/05-home-visiting-funding-reeves> 2016. 4. 27. 인출.
- Smith, C., Perou, R. & Lesesne, C. (2002). Parent education.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Social conditions and applied parenting* (389-410), Mahwah, NJ: Lawrence Erlbaum.



# 부모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부모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초 부모에 의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의 역할과 소위 ‘좋은’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정부는 3월 관계부처협동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관계부처합동, 2016)을 제안하였음.

현대사회 부모들은 장시간근로 등으로 자녀와 보낼 시간의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중심적인 돌봄 문화로 인한 역할 부담, 무한경쟁사회에서 자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 등 부모로서의 삶에 힘겨움을 느끼고 있음. 이와 같이 부모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개별적인 해결을 넘어 사회적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며, 원활한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못할 때 자녀에 대해 부모가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일가정양립정책, 돌봄서비스 지원, 돌봄의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다양하며, 그 연속선상에서 부모교육 활성화를 고려해볼 수 있음.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부모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은 무엇인지 관련 문헌들을 통해 검토한 후,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1. 부모교육 현황

정부가 실시하는 부모교육 현황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음. 여성가족부의 경우 가족정책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녀연령대별 부모교육과 아버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초·중·

\* 해당내용은 발표자가 2015년 작성한 다음의 원고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가족교육 확산을 위한 가족정책의 역할과 지원 방안”.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제1차 가족정책포럼 ‘새로운 가족가치와 가족성장을 위한 가족교육 확산 방안’ 자료집, p.23-33/ 2015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전략센터 현안리포트 “가족변화 적응과 가족가치 확립을 위한 가족교육 확산 방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를 지원하는 센터(학부모 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 1) 여성가족부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으로 가족정책이 추진되고, 가족정책 전달체계인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설치됨.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교육’(법령 제32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모교육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건강가정지원 센터는 2016년 1월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포함 전국 15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여성가족부, 2016:157)

-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모교육은 현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가족 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상별 교육이며, 남성대상교육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 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남성대상 자기돌봄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임(<표 1> 참조)

<표 1> 2014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공통사업) 내용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공통사업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 가족 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 예비/신혼기부부교육(결혼준비교육), 영유아기 자녀교육, 초등학령기 자녀교육, 청소년기 자녀교육, 성인기 자녀 부모교육, 조부모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 일-가정 양립과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 남성대상 자기돌봄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4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p.5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93,24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교육 중 가장 참여율이 높았음.

<표 2> 가족교육사업 프로그램별 회기 수/참여현황(2014년)

(단위: 명, 회기, %)

구분	세부분류	참여인원			합계	진행 회기 수
		남	녀	비구분		
남성	남성대상교육	30,621	5,131	26,972	62,724	2,015
부모 교육	예비부모교육	4,326	6,575	3,738	14,639	591
	영유아기자녀 부모교육	3,045	14,453	3,168	20,666	925
	초등저학령기자녀 부모교육	2,661	19,568	5,097	27,326	952
	청소년기자녀(중년기) 부모교육	1,713	7,624	6,898	16,235	511
	성인기자녀(노년기) 부모교육	393	991	3,248	4,632	95
	조부모교육	1,017	5,006	3,723	9,746	242
	소계	13,155	54,217	25,872	93,244	3,316
가족 교육	신혼기 가족교육	4,030	4,211	508	8,749	353
	중년기 가족교육	5,314	15,166	1,904	22,384	937
	노년기 가족교육	2,590	8,362	17,199	28,151	926
	소계	11,934	27,739	19,611	59,284	2,216
자녀	자녀대상교육	6,516	7,324	77,201	91,041	1,726
기타	기타교육	4,193	14,815	143,737	162,745	3,285
합계		66,419	109,226	293,393	469,038	12,558
비율		14.2	23.3	62.6	100.0	-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2014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p.6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은 중앙 단위에서 개발한 교육매뉴얼을 전국 공통으로 사용함. 2014년 개발된 부모교육 매뉴얼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이론적 근거기반과 부모의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블로그) 자녀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아버지교육으로 구성됨. 주요 내용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치,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부모역할의 실천 등으로 이루어짐

<표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황

구분	회기	대상	내용
자녀 생애주기	1	공통	부모됨의 의미, 중요성,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습득 부모로서의 나를 점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
	2	예비부모	준비된 부모의 중요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부모됨 이해, 임신과 출산 과정 이해
		영유아기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특성 및 중요성, 그에 따른 부모역할 이해 건강한 부모역할의 실천 및 안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학령기 (아동기)	아동기 자녀의 발달특성 및 중요성, 그에 따른 부모역할 이해 건강한 부모역할의 실천 및 성장지향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청소년기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특성 및 중요성, 그에 따른 부모역할 이해 건강한 부모역할의 실천 및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아버지 교육	1	아버지 교육1	아버지됨의 의미와 중요성, 동기 등에 대한 인식 아버지로서의 나를 점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
	2	아버지 교육2	좋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연령별,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hfc10/220075407676> (2015.6.8 검색)

##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육,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관 고유기능의 하나로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두고 있음(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5:15). 2016년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73개소로 전국에 총92개소가 설치·운영됨(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10000/d1\\_10007.jsp#](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10000/d1_10007.jsp#) 검색일 2016.4.26.)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4년 참여인원은 125,091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함.

<표 4> 2011-20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추진 현황

(단위: 회, 명)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8,749	269,016	1,034	38,460	838	49,079	1,090	56,386	5,787	125,09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85

부모교육 내용별로는 육아에 대한 교육이 6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자아계발에 대한 내용이 많았음

<표 5> 20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내용별 건수




(단위: 건, %)

구분	총계	육아	부모의 자아계발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해	교양강좌	기타
부모교육 내용별 건수	3,516 (100)	2,158 (61.4)	433 (12.3)	54 (1.5)	292 (8.3)	579 (16.5)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82.

부모교육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건복지부, 2013)을 기초로 부모교육의 구성 내용 중 부모 역량강화 부분과 인성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을 수합, 정리한 자료를 활용해 재구성해 전국단위로 사용하고 있음(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5:86)

<표 6>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인성교육 소책자, 매뉴얼, PPT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인성교육 소책자, 매뉴얼, PPT		
		
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됨 : 자신 있는 부모 되기</li> <li>• 부모역량강화 : 아이와 소통하기</li> <li>•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기 : 배려, 존중</li> <li>• 더불어 사는 아이로 키우기 : 협력, 나눔</li> <li>• 기본이 바른 아이로 키우기 : 질서, 효</li> </ul>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86-87.

### 3)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권리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정보 서비스 제공 등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Info/PTR0000\\_50884](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Info/PTR0000_50884), 검색일: 2016.4.26.)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정부 3.0 실행계획」(2013년)의 세부 계획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제시함. 구체적으로 학부모지원센터(전국 93개소)와 교육청을 통해 학부모상담, 연수, 학교 참여 컨설팅 등 제공과 지역사회 유관기관<sup>1)</sup>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자녀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함(교육부 보도자료, 2015.5.7.일자)

1) 유관기관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Wee센터 등이 포함됨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부모교육(2012년~2015년 상반기)을 보면 교육청에서 실시한 건수가 가장 많으며, 그 외 공공기관, 군부대 등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표 7> 학부모교육 추진실적(2012~2015. 상반기)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상반기
교육청		-	954,997	435,695	146,946
찾아가는 교육	공공기관	-	314,898	211,187	66,657
	군부대	-	10,338	6,136	2,424
	종교단체 등	-	90,249	53,964	11,767
	소계	-	415,485	217,287	80,848
총계		154,478	1,370,482	706,982	227,794

자료: 교육부, “2012~2015 상반기 학부모교육 추진실적”(내부자료) 참조; 장명선·한지영·김민경·조연숙 (2015),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p.32에서 재인용.

교육부의 학부모교육은 시도교육청이 개별 또는 자체 개발한 매뉴얼이나 서울대 학부모 정책연구센터에서 개발한 ‘밥상머리교육’ 등을 활용해 이루어짐. 다음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은 2014년에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등 해당 연령별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가이드북을 공동 개발한 것임. 전 연령대에서 ‘부모, 자녀 그리고 교육’, ‘인성·생활지도의 힘’, ‘성공적인 학습지도’ 등을 공통영역화해 자녀연령대별로 필요한 세부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미래 진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 구성하고 있음.

<표 8> 연령별 학부모 자녀교육 내용

대상	주제	세부내용	
유치원 3-5세	1. 부모, 자녀 그리고 교육	1) 지혜로운 엄마, 아빠	1.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2. 영유아기, 가족의 역할은? 3. 부모의 유형과 좋은 부모 되기 4. 자녀의 행동에 따른 반응방법 5. 좋은 부모의 올바른 지도방법
		2) 자녀 이해하기	1. 아이들은 왜 태어날까? 2. 본성을 알면 아이를 이해하기 쉽다 3. 아이들은 개성과 능력이 서로 다르다 4. 유아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3) 유치원이란?	1. 내 아이의 첫 학교, 유치원 2. 유치원과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차이 3.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 4. 유치원에서의 하루 일과는? 5. 유치원,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대상	주제	세부내용	
	II. 인성·생활 지도의 힘	4) 자녀의 미래, 올바른 인성교육	1. 행복한 대화법 (1) 들어주기 2. 행복한 대화법 (2) 칭찬과 격려하기 3. 행복한 대화법 (3) '나-전달법' 4. 행복한 대화법 (4)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5. 우리 가족 대화 점수는? 6. 즐거운 가족화목활동 7. 양성평등교육이 중요한 이유 8. 다문화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법
		5) 행복한 유치원생활 도와주기	1. 내 아이, 친구 만들기 2. 유아 성교육의 기초 3. 성교육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4.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자 5. 우리 아이 안전교육 6. 학부모의 유치원 참여 방법 7. 알아두면 좋은 유아교육제도
	III. 성공적인 학습지도	6)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	1. 놀면서 배우는 유아 2. 생활 속의 언어교육 3. 생활 속의 수학교육 4. 스스로 배우기와 함께 배우기
		7) 창의적인 학습플래닝	1. 뇌의 놀라운 능력 2.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 3. 뇌를 발달시키는 생활습관 4. 아이들은 자체가 예술가! 5. 아이에게 좋은 예술경험 6.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초등 1-3학년	I. 부모, 자녀 그리고 교육	1) 지혜로운 엄마, 아빠	1. 극성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2. 자녀교육보다 부모교육이 먼저다 3.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4. 긍정적 자아개념을 길러 주는 부모 5. 격려하는 법을 배우자 6.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
		2)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이해하기	1. 엄마, 아빠의 균형이 필요하다 2. 아빠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5가지 방법 3. 선택과 책임의 기회를 주자 4.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자 5. 친구 사귀기에 필요한 것들 6. 성격별, 유형별 친구 사귀기 방법
	II. 인성·생활 지도의 힘	3) 자녀의 미래, 올바른 인성교육	1. 인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2. 칭찬이 중요한 이유 3. 가장 효과적인 칭찬 방법 7가지 4. 칭찬하기 4단계 5. 꾸중에도 법칙이 있다 6. 꾸중할 때 지켜야 할 원칙
		4) 행복한 학교생활 도와주기	1. 부모가 해야 할 성교육의 내용 2. 성폭행에 관한 오해와 진실 3. 학교폭력 추방,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4. 폭력사안 발생시 대처방법 5. 피해학생, 가해학생 부모의 역할 6. 우리 아이 안전교육

대상	주제	세부내용	
	III. 성공적인 학습지도	5)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	1. 자기주도학습이란? 2. 집에서 길러주는 집중력 향상법 3. 영어학습, 이렇게 해 보자
		6) 창의적인 학습플래닝	1. 행복과 성공의 비밀, EQ 키우기 2. 창의적 사고능력 기르는 법 3. 저학년 아이의 뇌 잠재성 키우기 4. 초등학교 독서지도의 노하우 5. 미래를 바꾸는 진로지도
초등 4-6학년	I. 부모, 자녀 그리고 교육	1) 지혜로운 엄마, 아빠	1. 나는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부모일까? 2.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6가지 노하우 3. 행복해지는 비결은? 4. 소통하는 법, 공감하는 법
		2)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이해하기	1. 행복의 첫 열쇠는 자존감! 2. 자존감의 출발은 부모의 양육방식 3. 아이의 자존감, 이렇게 높여 주자 4. 사춘기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 5. 고학년 아이, 교우관계의 특성 이해하기
	II. 인성·생활 지도의 힘	3) 자녀의 미래, 올바른 인성교육	1. 우리 아이 도덕성 키우기 2.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아이 3. 밥상머리교육의 효과와 실천 방법 4. 실천! 공감적 대화 연습하기 5. 다문화 사회, 함께 살아가기
		4) 행복한 학교생활 도와주기	1.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2. 폭력사안 발생 시 대처방법 3. 뇌 발달을 막는 게임·인터넷·스마트 폰 4. 인터넷 중독에서 탈출하기 5. 우리 아이 안전교육
	III. 성공적인 학습지도	5)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	1. 우리아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2. 집중력 향상의 노하우 3. 영어학습에 자신감 키우기 4.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6) 창의적인 학습플래닝	1. 고학년 아이의 뇌 잠재성 깨우기 2. 숨어 있는 영재성 키워 주기 3. 자녀학습을 도와주는 11가지 전략 4. 효과적으로 숙제 하기 5. 생각하는 힘, 독서교육의 포인트 6. 고학년 독서논술 지도법 7.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8. 부모와 함께 세우는 진로계획
중학교	I. 부모, 자녀 그리고 교육	1) 지혜로운 엄마, 아빠	1. 부모에게 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2. 미래를 위해 현재와 대화하기 3. 부모로서 나의 강점 살펴보기 4. 아이의 재능을 찾고 살려 주기
		2) 중학생 자녀 이해하기	1. 중학생은 인생에서 어떤 시기일까? 2. 6가지 발달영역의 이해와 지원 3. 중학생 자녀의 심리와 대응방법

대상	주제	세부내용	
	II. 인성·생활 지도의 힘	3) 자녀의 미래, 올바른 인성교육	1. 부모로서 나의 대화법 돌아보기 2. 효과적인 대화의 4원칙 3. 감성코칭 연습하기 4. 바르게 칭찬하고 지적하는 방법
		4) 행복한 학교생활 도와주기	1. 학교부적응의 다양한 유형과 대책 2. 학교폭력 발생현황과 대처방안 3. 학교폭력의 4가지 요인과 해결방법 4. 따돌림, 이유를 알면 해결책이 보인다 5. 우리 아이 안전교육
	III. 성공적인 학습지도	5)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	1. 자기주도학습의 기본원리 2. 자기주도학습의 전략적인 방법 3. 내 아이, 자기주도학습자로 기르기 4. 삶의 목표 세우기 5. 학습계획 세우기 6. 학습환경 관리 전략 7. 학습부진의 원인과 해결방법
	IV. 미래를 바꾸는 진로지도	6)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지도	1. 자유학기제에 대한 A to Z 2. 진로탐색, 어떻게 도와줄까? 3.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4. 인생 비전 수립하기
고등 학교	1) 고등학생 자녀 이해하기		1. 고등학생 자녀의 발달과정 2. 자율성과 자존감이 중요한 시기 3. 자녀의 심리, 이렇게 대응하자 4. 청소년기의 심리적 장애에 대처하기
	2) 인성·생활지도의 힘		1. 칭찬과 지적은 따뜻하고 정확하게 2.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법 3. 실천! 좋은 대화기술 연습하기
	3) 행복한 학교생활 도와주기		1. 학교부적응의 행동특성 2. 학교부적응의 유형과 대책 3.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유형과 대처방법 4.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5. 우리 아이 안전교육
	4)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		1.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부모의 역할 2.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배우기 3. 체계적인 학습 플래닝 방법 4. 효율적인 시험계획 세우기 5. 입시제도와 자기주도학습 6. 시험 잘 보는 공부법, 자기주도학습의 7가지 원리 7. 참고서 활용 전략
	5) 미래를 바꾸는 진로지도		1. 꿈을 위한 구체적인 인생 로드맵 2. 창의적 체험활동 포트폴리오 관리 3.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이해하기 4. 스토리가 있는 자기소개서 쓰기 5. 진로·진학 상담하기



대상	주제	세부내용	
특수 교육 대상 학생	I. 부모, 자녀 그리고 교육	1) 지혜로운 엄마, 아빠	1. 나는 어떤 부모일까 2. 나의 자녀양육 태도는? 3.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솔루션 4. 장애아동 가족의 위기와 지원 5. 장애아동 부모로서의 자세 6. 장애아동 양육의 10가지 지혜
		2) 장애아동, 내 자녀 이해하기	1. 장애아동의 주요 특성과 지도방법 2. 사춘기 자녀의 올바른 양육방법 3. 장애아동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4. 심리치료 서비스 활용하기
	II. 실천적인 인성 및 생활지도	3) 신변자립과 인성교육	1. 신변자립에 대한 이해 2. 필수적인 신변처리기술 배우기 3. 신변자립의 시작은 인성교육 4. 인성을 길러 주는 감정코칭
		4) 행복한 학교생활 도와주기	1. 장애아동 성교육의 필요성 2.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3. 지적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4.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5. 학교폭력 피해예방 및 대처방법 6. 우리 아이 필수 안전교육 7.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제도
		5) 긍정적인 몸과 마음 유지하기	1. 언어발달과 사회성 기르기 2. 집중력 향상과 아동기 정서발달 지원 3.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용하기 4. 자신을 찾아가는 명상과 힐링
	III. 성공적인 학습지도	6)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	1. 시각장애 자녀에 대한 생활 및 학습지원 2.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과 학습지원 3. 지체장애 자녀를 위한 감각통합 활동 4. 지혜로운 자기결정기술 5. 긍정적인 자기관리 실천하기
		7) 독서활동과 스마트교육	1. 즐거운 독서습관 기르기 2. 자녀의 생각표현, 글쓰기 지도
	IV. 미래를 바꾸는 진로지도	8)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탐색	1. 진로교육 알아보기 2. 자녀의 미래계획 세우기 3. 내 아이의 강점 발견하기 4. 자녀의 미래직업 결정하기 5. 장애학생 진로·직업 결정 내실화사업

자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2014). 「고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유치원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초등학교(1~3학년)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초등학교(4~6학년)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교육부 학부모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기 주도 학습 코칭 매뉴얼, 자유학기제, 학부모 교육

매뉴얼,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우리아이 유치원 보내기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함. 더불어 다양한 워크북, 동영상 자료, 부모교육 교재를 유아교육(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 제공함(이미화 외, 2015:28)

<표 9> 학부모 온라인 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 예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창의적 교수법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우리아이 유치원 보내기
	우리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우리아이 중학교 보내기
	우리아이 고등학교 보내기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자유학기제, 학부모교육매뉴얼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자기주도학습코칭 매뉴얼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우리아이 경제교육

자료: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 검색일: 2016. 4. 26)

## 2.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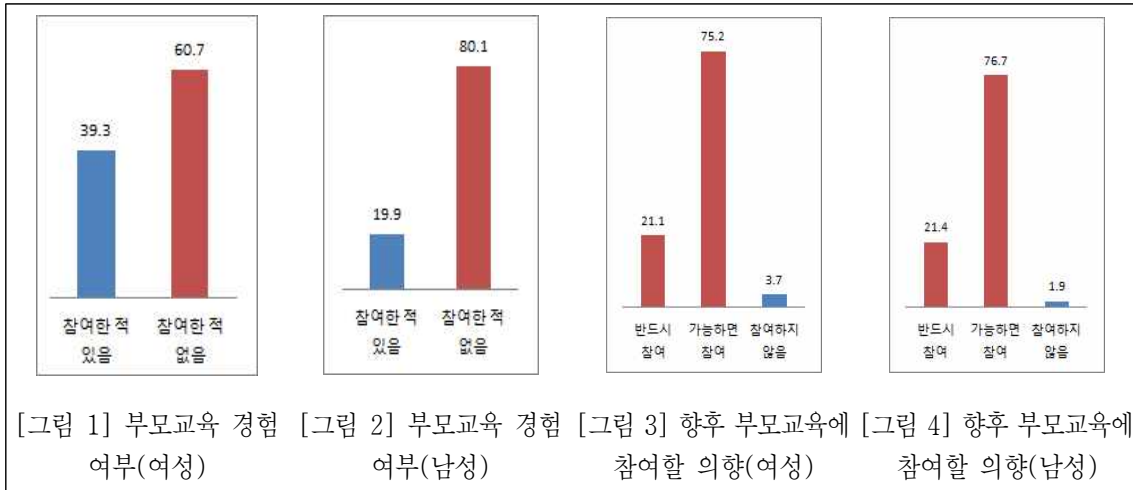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모들의 교육 인식과 요구에 대한 최근 조사결과<sup>2)</sup>들을 살펴보았음

먼저,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연구한 이미화 외(2015)는 예비부모를 포함한 영유아 부모 1,012명을 대상(여성 806명, 남성 206명)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음. 분석결과 중 부모교육 참여 여부와 참여 의향, 참여하지 못한 이유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 해당 내용은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김의향·신혜원·신운승·신영아·배성연·김영란(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p.50-56의 내용과 이인선·윤덕경·이미정·김소영·장화정·강지영(201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70-82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재구성함.

부모교육 참여 여부의 경우 응답자의 다수(여성 60.7%, 남성 80.1%)는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여성 96.3%, 남성 98.1%) 향후 부모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20% 이상이어서 참여의향이 매우 높았음.

(단위: %)



자료: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김의향·신혜원·신운승·신영아·배성연·김영란(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개발」, p.51, 56.

부모들의 교육 참여의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로는 시간과 정보와 같은 자원 부족, 원하는 교육 부재 등 교육 접근성 문제가 주요하게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보면, 남녀 부모 모두 ‘정보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이 높았음. 그 외 ‘자녀 볼 사람이 없음’, ‘원하는 교육 없음’, ‘교육기관 찾기 어려움’ 등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지적되어 되었음.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 볼 사람이 없음’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10> 부모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1+2순위)

(단위: %, 명)

구분	정보 언지 못함	시간 없음	자녀볼 사람이 없음	원하는 교육 없음	교육기관 찾기 어려움	장소 갈 수 없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관심 없음	기타	수
여	55.0	40.5	31.1	17.8	17.0	16.0	10.2	6.5	5.9	(489)
남	61.8	52.1	16.4	18.8	18.8	10.9	12.1	6.7	2.4	(165)

자료: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김의향·신혜원·신운승·신영아·배성연·김영란(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개발」, p.56.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요구를 조사한 이해숙 외(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교육 참여 경험비율은 낮지만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의향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정보 부족’과 ‘시간 부족’ 등이 지적되어(이해숙 외, 2014) 앞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이인선 외(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부모 2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평가 및 요구를 분석하였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첫째, 부모교육 내용과 관련한 평가에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대처방법이나 해결방법을 제시해준 교육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이론중심의 강의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인식함. 특히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부모들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안도감”, “우리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을 느끼거나 “출산전후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 스스로 어떻게 주체해야 하는지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를 학대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음(이인선 외, 2013:70)

또한 부모 자신의 내면적 부분과 양육방식, 부부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이인선 외, 2013:71)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아동의 발달단계별 지식과 적절한 양육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에 대한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 뿐 아니라 부부관계 향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부모 자신과 친부모와의 관계 및 자존감 등 부모 자신의 내적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와 해결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대체로 느끼고 있었음. 그 외에도 부모와 가족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나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이인선 외, 2013:74-78)

둘째,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아쉬운 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특히 강사에 따라 교육 내용의 차이가 크고, 실질적 사례와 내용을 다루는 강사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언급되었음

부모들은 이론적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성을 강화(구체적 사례 예시 교육)하고, 부모들의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부모들간의 토론, 워크숍, 역할극 등)을 적용하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 인식하였음(이인선 외, 2013:78). 이는 부모교육이 강사의 일방적 지식 전달보다는 “같은 경험을 가진 부모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양육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이인선 외, 2013:73-74)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함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음. 부모교육의 만족도와 효과는 강사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바, 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강사나 검증된 강사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었음. 또한 취업활동 등으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음(이인선 외, 2013:73-79)

셋째,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지원이나 취약계층 정부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교와 군대에서의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직장의 직무 교육에 부모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대를 다양하게 구성하거나 자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현실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교육매뉴얼 제공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음(이인선 외, 2013:80-82)

### 3.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sup>3)</sup>

앞서 살펴본 현황 및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먼저, 부모교육 콘텐츠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구성하고, 강사의 전문성 제고와 풀 공유 등 부모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정부 지원서비스·인프라를 활용해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의 전달체계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함

#### 가. 부모교육의 체계화: 교육 프로그램 정비와 강사 전문성 강화

##### 1) 수요자 친화적 교육 콘텐츠 구성

부모들이 부모교육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참여도가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부모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 그들의 욕구와 문제인식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반을 둔 교육 콘텐츠의 구성과 교육명(부모교육을 대체할 다른 이름)을 개발하는 등이 요구됨.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담을 필요가 있음

3) 부모교육 확산 방안은 2015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전략센터의 1/2차 전문가 간담회(학계, 건강가정지원센터/학부모정책연구센터/한국연구재단 등 부모교육 수행·지원 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제1차 가족정책포럼(‘새로운 가족가치와 가족성장을 위한 가족교육 확산 방안’)의 토론내용 등을 참고하여 마련함

여성가족부 대외협력사업(2011-2012)으로 실시된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의 ‘동네아빠 워크숍’은 “아버지들의 자기돌봄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권리와 역할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가족 간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당초 ‘아버지학교’라는 이름으로 기획되었으나 기존에 아버지학교를 참여한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위반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기분이 안 좋다’고 하여 ‘동네아빠워크숍’으로 명칭을 변경함 (여성가족부, 2012:200)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이 “일과 가정의 양립보다는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라, 아이를 좀 더 잘봐라...일하기도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뭔가를 하라고 그래. 남편을 입장에서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자꾸 교육받아야 한다하고 뭐 자꾸 하라 그래 이런 느낌을...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게 일을 하면서 얻어진 피곤, 피로, 불안 이런 것들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교육. 그럼으로써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돌봄.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지 하지 않나...”<sup>4)</sup>

이에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시 가족상담 사례분석 및 관련 수요조사결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음. 일례로, 장혜경 외(2013)는 충청북도 남성들의 삶의 욕구와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파악해 남성들의 생애단계와 욕구에 조응하는 아버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가칭 ‘아버지 행복캠프’)의 가치와 내용을 개발한 바 있음

<표 11> ‘(가칭)아버지행복캠프’ 핵심가치 및 프로그램

핵심 가치	Healing(쉽/관계 회복)	Playing(놀이)	Planning(인생 기획)
주요 내용	정체성의 혼란·지친 삶으로부터의 휴식, 자기표현 및 관계 맺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기술·방법 체험, 자조활동	남성·아버지로서 인생 기획, 은퇴 이후 삶 준비
서비스·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와 답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 공간</li> <li>•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고민, 갈등 상담</li> <li>• 가족 공감을 위한 심리역할극</li> <li>• 가족과의 눈높이 대화법 익히기</li> <li>• 자기표현, 감정표현법 익히기</li> <li>• 부부관계 상담</li> <li>• 자녀와 떨어져 사는 아버지들을 위한 가족관계 프로그램</li> <li>• 성(性)고민 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와의 놀이법 체험</li> <li>• 육아체험 (영유아, 취학자녀)</li> <li>• 자녀양육 체험 (청소년기, 청년기)</li> <li>• 요리, 가사 체험</li> <li>• 자녀학습 코칭, 진로지도 체험</li> <li>• 자녀, 부부와 함께 하는 문화·레저 체험</li> <li>• 아버지들의 친목모임 및 활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 자기계발 지원</li> <li>• 예비아빠 체험</li> <li>• 나의 경험과 장점 타인과 나누기</li> <li>• 은퇴 후 대처법(1): 돈, 시간, 관계 등 인생재설계</li> <li>• 은퇴 후 대처법(2):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체험</li> </ul>
제공 방법	상담, 교육	체험, 자조모임	교육, 체험

자료: 장혜경·김소영·선보영·정재훈(2013). 「‘(가칭) 아버지 역량강화센터((가칭)아버지행복캠프)’ 건립 타당성 조사」, p.54.

4) 가족교육 관련 제1차 전문가 간담회(2015.5.7 개최)에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임

<표 12> 연령대 및 프로그램 핵심가치 매트릭스

핵심가치	30대	40대	50대
Healing	• 가족과의 눈높이 대화법	• 부부관계 상담 • 가족과의 눈높이 대화법 • 남성, 아버지로서의 고민상담 • 성 고민 상담	• 자기표현, 감정표현 익히기 • 남성, 아버지로서의 고민상담
Playing	• 아버지들의 친목모임 및 활동 • 자녀, 부부와 함께 하는 문화레저 체험	• 자녀, 부부와 함께 하는 문화레저 체험 • 요리, 가사 체험	-
Planning	• 나의 경험과 장점 타인과 나누기	• 은퇴 후 대처법 (1), (2)	• 아버지 자기계발

자료: 장혜경·김소영·선보영·정재훈(2013). 「‘(가칭) 아버지 역량강화센터((가칭)아버지행복캠프)’ 건립 타당성 조사」, p.55.

## 2) 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풀 공유

앞의 면접조사결과에서 부모들이 강사에 따라 강의의 질적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부모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때 강사의 ‘전문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예를 들어 대학의 관련 커리큘럼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 경우 전문성이 높다고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요건들에 더 비중을 두고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전문성 향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관련해 앞서 부모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임.

그 뿐 아니라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강사인력 풀 정보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강사 풀을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나. 정부 지원서비스와의 연계<sup>5)</sup>

부모들의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 등 보편적인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뿐 아니라 저소득가족, 이혼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등 위기·취약가족 부모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및 지원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기관을 이용할 때에 핵심적인 자녀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에 대해 안내하고 수강을 권유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가족유형별 지원서비스와 부모교육의 연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5) 해당 내용은 이인선·윤덕경·이미정·김소영·장화정·강지영(201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93-94의 내용을 발췌해 정리, 보완한 것임

하고 있음. 전국 가정법원과 여성가족부가 적극 협력해 관련 교육내용을 보다 내실 있게 개발하고, 이수 교육시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지급 등 한부모가족 지원과 연결해 부모교육을 이수 하게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원기관과 연계해 부모교육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함

저소득가족은 드림스타트를 통한 부모 교육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등 복지 지원과 연결해 급여 신청 및 수령 시 부모교육 정보를 제공함

아동학대의 주된 행위자가 부모이고,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학대사례 비율이 높은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를 저지른 부모의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가 필요함

이와 같이 위기·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와 부모교육을 연계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예) 교육 받는 동안 자녀돌봄서비스 제공, 야간이나 주말 교육 확대, 찾아가는 서비스 등

## 다. 부모교육 전달체계의 다각화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채널과 방법을 다각화해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첫째,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의 경우 남성 친화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거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내 공간 마련 등이 필요함. 관련해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돌봄, 관계 맺기를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 발굴과 활용이 요구됨

예) 직장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한 아버지 돌봄 체험 프로그램

- 남성들이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놀아주면서 육아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예)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연계한 직장 EAP 프로그램

- 가족친화인증기업과 협력해 일-가정 양립, 아버지교육 등을 주제로 EAP 프로그램 기획·운영(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관리, 가족친화컨설팅의 수단 활용)

지역 내 남성들의 공간 마련에 대한 적극적 고려도 요구됨. 일부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한 바 있음

- 기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는 일상의 카페처럼 아버지들이 모여서 삶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소, 아버지들이 자조그룹을 형성하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존재함. 따라서 다른 세대와 다른 계층의 남성들이 삶을 공유하고, 특정 프로그램 없이 아버지들이 모여 휴식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구성이 필요함(장혜경 외, 2013:20)

- 남성들의 아버지 역할 전환을 돕는 플랫폼 구축: 남성들이 돌봄자로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회와 학습의 장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아버지들의 SNS나 온라인카페, 지역 내 아버지센터나 카페, 공동육아 내 부모모임 등 남성들이 모이기 편하고 쉬운 채널들을 활용해 남성 참여를 유도함(장혜경 외, 2013:60)

둘째,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의 다양한 공공/민간 전달체계 활용과 연계 방안 모색이 요구됨. 고려가능한 공간으로는 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이 있음

- (시민평생교육) 교육부의 전달체계/관련 정책과 연계를 통해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예) 평생교육기관의 교양강좌, 대학의 시민강좌
- (주민교육)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주민자치센터의 교양 교육강좌에 부모교육을 포함시켜 운영함
- (도서관이용자 대상 교육)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실시함. 도서관은 누구나 쉽게 찾는 공간으로 접근성이 좋고, ‘책’을 매개로 다양한 강좌와 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지역 공간임. 부모교육의 확산 근거지로 도서관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 가능함

셋째, 특정 시간에 교육장을 찾아가기 힘든 상황에 놓인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모바일 교육을 실시함. 출퇴근 등 이동 시 이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고사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TED 강연

## 참고문헌 및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2014). 「고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2014). 「유치원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2014). 「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2014). 「초등학교(1~3학년)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2014). 「초등학교(4~6학년)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경기도교육청(2014).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 김소영(2015). “가족교육 확산을 위한 가족정책의 역할과 지원 방안”.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제1차 가족정책포럼 ‘새로운 가족가치와 가족성장을 위한 가족 교육 확산 방안’ 자료집, p. 23-33.
- 김소영(2015). “가족변화 적응과 가족가치 확립을 위한 가족교육 확산 방안”.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전략센터 현안리포트.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년 전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2). 「100세 사회 가족생활 재설계 및 가족돌봄 지원방안 연구」.
-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김의향·신혜원·신운승·신영아·배성연·김영란(2015). 「부모 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인선·윤덕경·이미정·김소영·장화정·강지영(20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이혜숙·김장원·박수연·황미연(2014). 「부모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서울연구원·서울 특별시.
- 장명선·한지영·김민경·조연숙(2015).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 가족부

장혜경·김소영·선보영·정재훈(2013). 「‘(가칭)아버지역량강화센터 (가칭)아버지행복캠프’ 건립 타당성 조사」. 충청북도청.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김수완(2013).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Ⅲ)」.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4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교육부 보도자료, 2015.5.7.일자.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교육기본법」

## 참고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http://www.korea.go.kr>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parents.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hfc10>



# 지정토론

-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 이해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지정토론 1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부모교육현황과 활성화방안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과 과제에 관한 소중한 원고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다방면에서의 노력들에 대해 두 분의 원고로부터 많이 알게 되었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신 두 분의 깊고도 다양한 입체적 제언에 전격 동의합니다. 저는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대표강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한 남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느티나무 도서관의 동네아빠 워크숍 등의 부모교육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 번 부모교육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얕은 경험을 통해 의견을 적어봅니다.

첫째, 정부와 무관하게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모두 주도하지 않고 민간의 노력들을 지원도 해야하고 또 민간부문의 부모교육 소산으로부터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면, 실무자가 교육참여자를 도울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당사자의 문제의식을 이끌어내고 마침내 자조그룹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부모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거점이 부모들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모이도록 해 줄 것이므로 공동육아나눔터의 확산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째, ‘부모교육참여자를 반강제적으로 모집하고 교육내용은 계몽적이며 교육참여자의 특성과 그들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지 않도록 조정해야겠습니다. 일회성 단체 교육도 어찌면 현실성 있고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깨닫지 못하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적절한 교육일 것입니다. 이 때에는 그야말로 강사의 질이 중요합니다. 부모교육현황 평가에 포함되기 어려운 ‘강사의 질’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가 교육하는가? 적절한 부모교육 강사를 찾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강사의 양성과 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양성 경험을 보면, 아버지들은 여성강사에 대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분들은 남성교육 참여자들과 공감하기에 거리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계몽적이고 우월한 입장에서 교육자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자각을 고무하도록 의식전환이 된 교육자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 참여자의 특성을 민첩하게 파악하고 최적화하여 준비하는 자세의 강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는 플랫폼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의 부모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강사를 양성하고 정부지원 혹은 정부주도의 부모교육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며 적절한 교육의 형태를 연구 보급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 참여자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교육 내용으로 하는 것은 속아냈으면 합니다. 정보를 취사선택하게 하는 기준을 교육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활용해야할 고급 정보는 공공재로 생산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쉽도록 가공하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부모교육이 뻔하다는 기대를 반전시키는 내용과 방법!

끝으로 다소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자녀입장에서의 부모교육’ 즉,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교육을 받는다면 좋을지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입시와 성공을 위한 학교와 사회와 가정의 공조체제 속 억압적인 부모역할이 아닌 ‘온전한 인격 행복한 삶’으로 자녀들을 초대해 주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 숨 쉴 틈을 벌어주는 부모의 역할!

## 지정토론 2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부모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을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현대 사회 가족의 모습은 점점 더 취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임. 토론자가 마포구 생활보장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여 생계급여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대부분은 파탄지경에 이른 가족관계로 인한 것임. 어릴 적 친부 혹은 친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은 수 십 년이 지난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음. 이 뿐 아니라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 성매매, 성폭력 등 청소년의 심각한 사회문제 역시 그 원인을 따지다 보면 부모와 자녀관계의 파탄에 있는 경우가 많음.
- 학대의 문제는 물론,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부모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알 수 있음. 김명순 교수가 지적하듯 부모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가 되지만,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양육방식을 교육받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임. 과거에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를 비롯한 집안의 어른들과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자녀양육의 방법들을 습득했지만, 이러한 사적 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이 개개인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대한 공적개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임.
- 김소영 박사가 잘 요약해 주셨듯이,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부분의 교육이 단편적이고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분절적이어서 프로그램간의 연계를 찾아보기 어려움. 무엇보다 부모교육은 그 필요성을 인식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종의 선택편향(selection bias)이 나타나게 됨. 즉,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큼.

□ 결국 부모교육의 개선방향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의한 보편적 공교육’이라는 학교교육 모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부모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더 이상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거나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됨. 구체적으로 부모교육의 개선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 1) 부모교육의 실질적 보편성 확보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부모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양육하는 법을 터득하게 됨. 출산률이 높았으며 가족 네트워크의 역할이 강했던 과거에는 개별적인 차원으로 부모교육 내지는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 학교 교육에 준하는 보편적인 부모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먼저, 고등학교 교과에 아동에 대한 이해와 부모역할 훈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와 통합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영국의 경우 midwife가 신생아 출생 시 기초적인 육아법을 1:1로 지도함. 임신, 출산, 영아기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영유아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육아 정보를 제공
- 산모수첩, 예방접종 시기와 연관하여 관련된 부모교육 정보 제공
- 보육서비스 및 관련 급여 제공시 부모교육 연계 방안 고려(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아이행복카드 발급 등)
-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 온라인 부모교육 활성화
- 남성은 군대, 여성은 산후조리원이 보편적 부모교육이 가능한 장소임

### 2) 남성(아버지) 교육의 확대와 성역할 재조정

최근 아빠육아가 TV예능의 소재로 다루어지면서 남성들의 가사(요리) 및 육아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나아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육아에 나서는 아버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부성실천을 위한 육아휴직 활용 역시 급속히 증가. 실제 아빠들을 면접해보면, 모든 자녀양육과 교육정보들이 여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남성들이 아동양육과 관련된 육아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함.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영아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가사와 육아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남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3) 부모들의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 부모 상담,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지금까지 논의한 부모교육이 전문적 강사 및 콘텐츠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러한 일방향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 예컨대 한 밤에 갑자기 아기가 아프거나 어떤 증세를 보일 경우 부모는 당황해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와 같이 육아에 대한 종합 정보와 상담을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아이사랑 육아포털에서 상담이 가능하지만 낮 시간에 제한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함.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멘토링 서비스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음. 나아가 부모들의 자조집단이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 지정토론 3

이혜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교육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여, 부모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소견을 덧붙이는 것으로서 발표자로서의 소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교육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모교육은 주로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생애주기별 접근을 시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족의 울타리에서 양육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시민에게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생애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생애단계별(학령기부터 노년기까지)로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부모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모교육의 중점대상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두 분 발표자 모두 이 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 위기 가정 등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Youth and Family Centres’를 2011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부모교육 및 양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sup>1)</sup> 이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타깃 대상은 저소득층 등 우선 대상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층 등 우선 대상자에 대한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개발하여, 생계에 매달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에 맞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이혜숙 외(2014). 서울시 부모학습지원 모델 개발연구. 서울시·서울연구원

셋째, 누구나 손쉽게 부모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표 원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과 ‘정보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표 원고에서 제시한 것처럼, 찾아가는 교육 및 온라인, 모바일 교육, 주민교육, 평생교육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부모교육의 이용자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지부를 두고 있는 Home start Amsterdam은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가 직접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에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육아반장을 두어 취학 전 또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모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거론되었듯이, ‘대상자’로서의 부모교육이 아닌 ‘학습자’로서의 부모교육/부모학습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수강자가 아니라 직접 자녀 또는 미래의 주역을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빠학교, 아버지 자조모임, 부모커뮤니티 등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기대입니다. 부모교육 주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그에 따른 유인책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김 박사님이 제시한 것처럼 가족유형별 지원서비스와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의무 이수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장 내 교육으로 부모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 각종 교육훈련 및 고용훈련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우리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민관의 문화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늘 발표하신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셨고, 또한 미래의 부모교육의 방향에 대해 학문적, 정책적으로 유용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엽기에 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과연 이 시대 한국에서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김명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parenting이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가장 의미 있는 과업임에 분명하다. 어쩌면 오늘의 발표내용에서 다소 한발짝 떨어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할 질문은 부모됨과 양육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물론 모두 부모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목표가 존재하겠으나, 현대사회에서 양육은 책임감 있고(responsible), 타인을 보호할 줄 알며(caring), 적극적이면서(compassionate), 자기회복력인 있는(resilient)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http://centerforparentingeducation.org/>). 즉, 자녀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화하는 중요한 역할이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다. 동시에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으며, 부모됨이란 끝없는 좌절과 시행착오의 과정일 수밖에 없으므로, 부모를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은 그만큼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오늘 발표자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신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부모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모를 위한 지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든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교육의 내용상 영유아기는 양육지식제공, 학령기는 진로, 학습, 교육, 대화법, 그리고 청소년기는 사춘기자녀와의 대화법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즉, 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 및 지식, 자녀문제의 ‘해결’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파악된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가 알아야 할 양육지식도 물론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겠으나, 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다소 정보적 지지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교육을 과다하게 제공하기 보다는 왜 부모가 되었는가?,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자 하는가? 에 대한 성찰이 가능한, 부모 자신의 역량과 기본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부모교육이 나아가길 제안하는 바이다.

자녀양육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개인의 지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가족 전체의 심리적, 관계적 에너지에 따라 긍정적인 부모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즉, 단편적인 지식의 제공이 아니라, 불가피한 시행착오의 연속인 부모됨의 과업을 건강하고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부모교육이 자리 잡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교육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오히려 각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 특성화를 방안이 바람직하겠다. 다양한 요구와 이슈를 가진 부모-자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으로서의 부모교육을 개발하는 동시에 자녀가 부모의 소유, 성취, 만족의 대상이 아닌, 언젠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다음 세대를 구성할 사회성원이라는 사회적 함의가 부모교육을 통해 확대 되는 것 또한 기대한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부모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혼과 임신 이전에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생애 초기부터 제공될 수 있는 장기적인 부모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학교교육, 또는 그 이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나은 이해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김명순 교수님이 소개하신, 보육프로그램을 통한 one-stop 방식의 부모교육 제공이나 찾아가는 부모교육, 장기적인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다양한 교육 제공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정보와 지식 또는 정서적 지원을 찾는 경로와 요구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로서 부모교육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내용 자체에 이견이 없다. 그런데 발표문은 ‘부모교육’ 주체로서 국가를 전제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가 주체 부모교육 필요성 근거인가?

부모교육 주체로서 국가를 전제로 하는 발표문의 맥락을 달리 표현하면 부모교육 주체 자체가 ‘없거나 혹은 국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모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가 외 다른 주체, 더 나아가 복지혼합(welfare mix)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한 부모교육 주체의 다양화·복합화는 어떻게 볼 수 있나?

또한 교육 대상으로서 부모는 남녀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성별노동분리 현상의 존재를 그대로 둔 부모교육이라면 결국 부모교육 대상은 여성이 되기 쉽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부모로서 남성 역할을 강조한 내용(김소영,2016)은 의미가 있다.

발표문(김명순,2016)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더 강화해야 할 부모교육 대상자와 부모교육방식이 있는가?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부모교육이 적극 지원되어야 하는가? - Yes, 사회  
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강도있게 주도해야 할 부모교육 대상과  
방식이 있음**

‘이런 류의 논쟁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저소득가정, 한부모 가정, 10대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가정, 농어촌가정’을 설정하고 있다. 가족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정 가족 유형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모교육 자체가 이러한 가족의 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자체가 가족문제 해결을 국가가 가족에게 전가하는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유형을 떠나 중산층 부모가정을 포함하여 한국 부모가 우선 요구하는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돌봄시설, 양육비 부담 절감 등을 포함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가족정책 로드맵이다.

발표문에서 물론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발표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정책 로드맵 구성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가 노출되었다고 부모교육이라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는 모양새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성찰할 때이다. 누리과정 이슈가 표류하고 있고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지위 격차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두 발표문에서 제시한 부모교육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족정책 로드맵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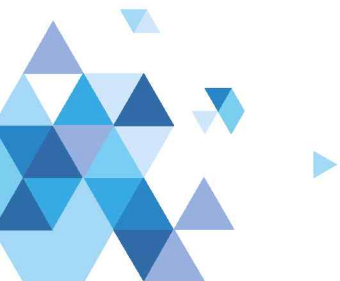












## 가족행복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02-3156-7291 FAX.02-3156-7279 [www.kwdi.re.kr](http://www.kwdi.re.kr)